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4년 3월 10일(주일) 제1482호



NGO 더멋진세상이 설치한 우물을 보며 기뻐하는 아프리카 말라위 칸디오마를 주민들.

“함께 이루어가는 더멋진세상”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3월 16~17일 약정서, 전화, 홈페이지 참여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더 멋진 세상을 만들어갈 친구들을 찾는다.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너와 내가 만드는 더 멋진 세상'을 주제로 3월 16일(토)과 17일(일) 열린다. 이날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2271-2246) 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하면 된다.

NGO 더멋진세상은 전 세계 37개국에서 가난과 질병,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섬기는 국제개발 NGO다. '더멋진마을을 조성',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 '다음세대 희망 심기

, '긴급구호 및 난민지원' 등을 하고 있다.

더멋진마을을 조성은 현재까지 18개국 22개 마을에서 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우물, 식수탑, 상수도, 급수탑, 식수탱크 등을 설치해 주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장, 쓰레기 소각장, 화장실, 샤워실, 태양광 패널, 가로등 등도 마련해주고 있다. 보건소 건축, 약품지원, 앰블런스 지원, 방역 등도 한다.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양계교육, 농업교육, 양계장 건축, 농장 건축, 비전센터도 설립한다.

취약계층 생명 살리기에서는 산모와 영유아, HIV 감염 아동, 고아, 노인 등을 돕는다.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해서 건강검진을 해주고,

산모의 출산을 돕는다. 의약품도 제공한다. 2013년부터는 네팔 극서부 지역 HIV 감염 아동들에게 매일 식량과 학용품, 생필품을 보내 주고, 의료지원을 하고 있다.

다음세대 희망심기에서는 ECD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한다. ECD 센터는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enter'의 약자로 만 3~5세 영유아들의 총체적 교육기관을 지칭한다. 영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긴급구호 및 난민지원은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다. 긴급구호품을 제공하고, 지역 복구도 돕는다. 난민들을 대상으로 인도적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관련기사 6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함께 성경 듣고, 읽고, 공부하고!

공동체 성경읽기,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

온누리교회가 함께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한다. '공동체 성경읽기'와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 한다.

'공동체 성경읽기'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됐다. 공동체 성경읽기는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 '순 공동체 성경읽기',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으로 구성된다.

공동체 성경읽기 새벽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순 공동체 성경읽기는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

체와 순에서 실시한다. 순 단위로 SNS 단체대화방을 개설해서 공동체 성경읽기 링크를 공유한다. 유튜브 '공동체 성경읽기' 채널에서 그 날짜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고, 링크를 공유하면 된다.

공동체 성경읽기 개별 모임은 3월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믿음홀에서 한다.

온누리 가스펠프로젝트(OGP)는 4월부터 시작한다. 공동체별로 구역 1권 '위대한 시작', 구역 2권 '하나님의 구출계획', 구역 3권 '약속의

땅', 구역 4권 '왕국의 성립', 구역 5권 '선지자와 왕'을 주제로 온라인으로 과정을 진행한다.

온누리가스펠프로젝트(OGP)는 성경 통합교재 <가스펠프로젝트>를 온누리교회에 맞춰 구성한 새로운 양육 프로그램이다. 나눴 중심의 소그룹 성경공부다. 소속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인도자를 포함해서 5명 내외의 소수 인원이 성경 각 단원의 핵심 내용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연대기 흐름을 이해하고,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총 12권(구약 6권, 신약 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신청과 문의는 각 공동체 양육 담당 총무에게 하면 된다.

문의: 02-3215-3239(공동체 성경읽기)

/ 홍하영 기자

바이 바이 플라스틱!

3월 31일까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바이 바이 플라스틱'이 3월 31일(일)까지 이어진다. 3월 8일(금)부터 3월 30일(토)까지는 '실천하기'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실제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한다. 일상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인 다음 사진으로 찍어 기록하면 된다.

지난 2월 14일(수)부터 3월 7일(목)까지는 '성찰하기' 기간이었다. 이 기간에는 '내 일상의 플라스틱 사용량은?'을 주제로 개인과 가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확인했다. 2024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소감문을 받는다. 4월 7일(일)까지 '성찰하기'와 '실천하기'기간에 찍은 사진과 간단한 소감문(A4 한 장 이내)을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SNS와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차세대 그림 대회 및 전시회도 개최한다. 4월 1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 관련 A4용지 한 장 크기의 그림을 그려서 이메일(onnuri.lent@gmail.com)로 보내면 된다. 5월 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에 전시한다.

/ 홍하영 기자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

3월 28일~4월 11일 19시 30분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가 열린다. 60대 이상 성도들을 대상으로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하단 QR 코드나 전화로 하면 된다. 원더풀 라이프 세미나에서는 김형석 명예교수(전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교수(한국교원대), 박종길 목사(온누리교회)가 강의한다. 원더풀 라이프는 6070세대가 은사와 전문성을 살려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살도록 돕는 사역팀이다.

문의: 02-3215-3434

/ 김다에 기자 daa2@onnuri.org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온라인커뮤니티가 2024년 상반기 개강을 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3월 26일(화)부터 6월 2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A Bold Witness for Christ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한 부어주심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어떠한 위협이 오더라도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둘째,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궁핍한 이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물질을 나눠 주는 기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뀝니다. 물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고 싶어지고, 궁핍과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의 필요를 돌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부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33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하고, 32절과 34-35절에서는 “사도들이 자신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큰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33절 말씀 앞뒤에 필요를 나누는 모습이 감싸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너희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차지하라고 주시는 그 땅에서 그분이 너희를 넉넉하게 복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신 15:4).

당시 예루살렘교회 성도 중에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사회 신분이 종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편으로 했던 일이 가난한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가까이 얼마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롬 15:25-26).

사도 바울의 중요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교회 성도들로부터 은혜를 받고 빛진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물질에 필요를 도와 그 빛을 갚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냐”는 말씀도 다른 서신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어떤 치유나 기적의 영역으로만 제한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중요한 역사는 성품의 변화,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연약한 지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그리고 어떤 성도에게 진정으로 성령님

이 임했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와 동시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돕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가입니다.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심
넘어서는 공동체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32절).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34-35절).

이 말씀은 공동 소유, 강제적 재산 공유를 지향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여전히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함께 모였다”는 말씀이 있고,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바쳤다”고 했습니다. 개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는 어떤 이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넘어선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들은 평등이라는 이념을 세우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어떤 필요가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나눠 줄 수 있는 공동체, 자기중심주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념과 제도로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평등이라는 이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적 차이를 법과 제도로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등한 사회는 차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넘는 사랑,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연약함을 보듬는 일이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평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육시스템도 평등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자는 의미에서 평준화 정책을 했습니다. 내년이 50년째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평준화’라는 이념이 가져온 교육 정책이 우리나라의 엄청난 잠재력을 일으키기보다 둔화시켰습니다. ‘평준화’가 아니라 ‘평등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사립학교들이 커리큘럼을 재량껏 세울 수 없게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 사립학교가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대신 종교학을 배

웁니다. 종교학 교과서를 보면 불교나 이슬람에 많은 지면 할애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는 2~3페이지입니다. 모든 사립학교가 그것을 의무적으로 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평준화라는 정책입니다. 모든 학생들을 평등하게 가르친다는 이념이 잘못 적용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말살될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산율이 저하 된다고 국가에서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가정의 중요성,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을 가르치도록 허용해 주면 되는데, 몇 십 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학을 가르친 결과 중 하나입니다. 물밑듯이 포스트모더니즘과 가정 해체주의가 들어와서 그 속에서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가정을 잊어버리고 해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과가 저출산입니다. 교육 평준화가 초기에는 기여한 바가 있지만, 갈수록 우리나라를 묶고 있고,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이념을 교육에 들이댄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법과 제도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재정과 물질에 대한 시각의 변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각자의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재정과 물질에 대한 세 가지 시각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소유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둘째, 독점이 아니라 나눔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도 안하는 종이 있고, 시키는 것만 하는 종이 있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들이 참된 청지기입니다.

셋째, 욕심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필요와 욕심은 다릅니다. 자신은 필요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심을 필요로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와 욕심을 구분하고,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도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도움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의 기적은 나눔과 위로였습니다.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고,
나눔이 가득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를 축원합니다.”

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필요가 아니라 욕심이면 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등은 인간적 차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할 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차이를 뛰어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모습이었습니 다.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함께 나섰기 때문입니다.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요,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겼습니 다. 그들을 칭찬하고 감동을 받았습니 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33절).

큰 권능과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나눔과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였습니다.

9월 열리는 서울 제4차 로잔대회 주제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증언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선포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나타내는 것은 삶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의 모습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로의 아들 ‘바나바’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36~37절).

키프로스는 그가 태어난 지역 이름입니다. 레위는 조상이고,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바나바’입니다. 그 뜻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를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을 부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별명이 바나바인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인이었기에 ‘~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히브리어에는 형용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인 표현을 할 때도 명사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용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자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빛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비취주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로의 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데 최고인 사람, 그를 만나면 누구나 위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명사를 통해 형용사적인 최상급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위로를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것만으로 그 별명을 얻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눔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영광 받기 원한다면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나눔을 기뻐하

고, 그가 다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기에 이름을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가 왜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는 사례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바나바의 이름이 〈사도행전〉 곳곳에 나오는데, 11장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의 기적 나눔 그리고 격려와 위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되었습니다”(행 11:22~24).

그가 안디옥에 파송을 받았습니 다.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파송을 받아 기뻐하며 그들을 격려했습니 다. ‘가르쳤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가르침인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격려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격려하며 세우는 사람이 있고, 정죄하며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행한 주된 일은 격려하는 일이었습니다. 위로와 격려는 결이 같은 사역입니다. 바나바는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위로의 사역, 격려의 사역으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은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세웠습니 다. 바울이 사역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겨우 세워진 게 아닙니다. 바

울은 자신의 과거 이력,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이력 때문에 자책감, ‘메시아를 몰라봤다’는 절망감과 씨름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절망감과 자책감을 씻어 준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 없었다면 바울이 〈사도행전〉 전면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웠기에 〈사도행전〉 역사가 달라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전도여행을 함께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이름이 주로 나오지만, 바울 곁에는 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물질적인 나눔만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꼭 나눌 게 있어야 나눔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에 목마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자책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바나바의 위로와 격려가 물질의 나눔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공동체의 기적은 한편으로는 나눔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고, 나눔이 가득하고,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갈 방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나눔과 위로의 기적이
온누리교회에서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재물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관’

나는 올해로 금융회사에 36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주변의 많은 분으로부터 올바른 성경적 경제관이나 돈과 소유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재정관 등을 자주 질문받는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재물을 중시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마 19:23~24), 한 사람이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는 예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의 부의 창출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과 풍요롭게 살기 위한 정직하고, 충성된 노력을 오히려 권장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하며,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고 말씀한다(잠 10:4). 아울러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강조한다(살후 3:10).

성경적 경제활동은 무엇보다 거룩한 개인의 자세에서 시작된다. 구제에 인색하지 않고, 더 불어 이웃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잠 11:25).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 및 문화 명령’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각 개인에게 부여되고, 나누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십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개인의 소유와 소득의 불균형을 인정함을 시

사한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은(銀) 열 므나(mina)의 비유’는 부지런하고 충성된 일꾼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교훈이다. 이처럼 성경은 각자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강조한다. 또한 대출과 이자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선의의 투자 활동을 우리에게 권한다(눅 19:23). 성경은 공정한 공의의 거래를 가르친다(잠 16:8). 나아가 성경은 빈곤의 구제를 그리스도인의 의무로 규정한다(요일 3:17). 하나님은 우리가 다수의 사람을 먹여 살리는 창조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신다(창 1:28).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이 인간의 경제활동에서도 발현되기를 원하신다(딤후 6:17~19).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악한 죄성이다. 악한 욕심은 쉽고 편하게 남보다 많은 물질을 갖기를 원한다. 통제하기 어려운 소유욕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선시하는 물질 우상 ‘맘몬주의’로 우리를 쉽게 빠져들게 한다.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관리의 이야기(눅 18:18~23), 예수님의 씨뿌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의 예화(마 13:22)는 세상의 염려, 재물, 명예, 욕심 등에 마음을 빼앗기면 영생 구원도 어렵고, 예수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낸다.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재정관 관련해서 랜디

알콘(Randy Alcorn)은 그의 명저 <돈, 소유, 영원>에서 다음과 같이 ‘관점의 변화’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재정은 ‘영원의 관점(Eternal Perspective)’과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이 두 가지에 기초해야 한다.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 즉 돈과 소유를 관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드림과 나눔의 기쁨을 진정으로 알고 누려야 한다.”

랜디 알콘은 우리에게 자신의 부와 소유를 영원의 관점과 청지기의 본분 인식 측면에서 돌아보라고 역설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9).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삶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마 25:31~46, 계 20:11~15). ‘구원의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은 이 땅에서 ‘각자 행한 것’에 대한 대가다. 주 예수님을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인 천국 입성을 결정하고, 이 땅에서 이룬 우리의 청지기적 삶은 천국 입성 이후 받게 될 상급을 결정한다.

성경은 하늘나라 상급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다. 대부분 간접적인 표현이나 비유와 같은 암시적 설명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계 22:12)이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이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다 했다는 사실이다(고전 9:24). 예수님이 “너희는 자기를 위해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말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는 법이다”(마 6:19~21)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돈과 소유를 항상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청지기 의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풍성한 경제적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자기 위해 쌓지 말고, 나누고, 베풀고, 드려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경제관이고, 재정관이다.



신재영 장로
(양천공동체)

호스피스와 교회

못다 한 효도, 못다 한 전도

호스피스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입원 간호’와 ‘가정간호’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총체적인 돌봄 프로그램(완화의료)이다. 호스피스에서 연로한 환우들을 보면 소천하신 부모님과 장인, 장모님 생각이 난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으면 양가 부모님을 보다 잘 모시고,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여건을 준비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준비하도록 했을 텐데 ...’ 하는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이 마음을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못다 한 효도, 혹은 하늘나라로 잘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곳에서 만회할 수 있다. 호스피스 사역에서 말이다.

<누가복음> 10장 25~37절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냐고 되물으셨다.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했다. “내 이웃이 누구나?”고 재차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같이 선을 베풀 자임을 알려주셨다.

<마태복음> 12장 46~5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의 범위를 육신의 혈육에서 영적으로 넓혀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돌봐야 할 내 이웃, 부모, 형제자매라고 하셨다.

아직도 마음에 효도와 전도를 못 했다고 생각되면, 우리 주변에 질병과 고난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잘 모시면 된다. 이 마음에는 훈련과 요령, 인내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서는 이미 14년 전부터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다. 못다 한 효도와 전도를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음을 주시시키고, 병원과 개인 호스피스에서 봉사하고 있다.

호스피스 사역에 오면 ‘호스피스 스쿨’에서 암에 걸린 분들의 다섯 단계 심리상태(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단계)를 공부하면서 환자를 더욱 이해하게 된다. 작은 봉사로 환자

들의 마음에 얽힌 여러 감정과 관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마음 문이 열리면 복음을 전한다. 지병으로 소천했을 때는 사별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긍지를 심어주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병원 사역이 대부분 막혀있었다. 그런데 점점 그 문이 열리고 있다. 오랜 기간 봉사해 왔던 양지 온누리요양센터도 문이 열려있다. 최근에는 온누리호스피스와 한국호스피스협회가 협력해서 중앙보훈병원에서 봉사하고자 문을 두드리는 중이다. 이전에는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봉사자들을 잘 받아주던 병원들이 이제는 골라서 받는다. 훈련과 기본기를 갖춘 봉사자들을 선별해서 보내 달라는 요청이 많다.

온누리호스피스에서는 이에 발맞추고자 1학기는 호스피스스쿨에서 9주 동안 기본 훈련을 하고, 5주 동안 발 마사지를 배운다. 2학기에는 림프 마사지 훈련과 사별자 가족들에게 하늘 소망을 전해 주는 공부를 한다. 물론 개인 호스피스는 방문 사역으로 이뤄지고, 환우

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연중 계속되고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모든 민족과 개인을 분별해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고 하셨다(마 25:31~46). 하나님이 보시는 양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다. 이웃이 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 들었을 때 돌보고, 욕에 갇혔을 때 와서 돌보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양의 무리에 속해야 한다.

온누리호스피스는 우리가 부모님께 못다 한 효도와 못다 한 전도를 만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의 무리에 들어가는 사역이다.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해서 못다 한 효도, 못다 한 전도에 힘쓰며, 같은 뜻을 가진 분들과 동역하지 않겠는가?



최민철 장로
(온누리호스피스 담당)

엄마 아빠, 성(性)이 궁금해요!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 여섯 가지 이유

이진아 전도사
(남가주 다음세대
지킴이 대표)

우리는 남자 혹은 여자 성(性)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다. 궁금증이 넘쳐나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성에 대해 질문하

는데, 부모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다. ‘어차피 크면 다 알텐데 집에서 굳이 성교육해야 하나?’ 생각하는 부모들도 많다. 그래서 성경적 성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정체성을 형성한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에 대해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친구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를 통해 성에 대한 왜곡된 내용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다. 성적 쾌락이 자신의 권리이며,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당연한 시대다. 왜곡된 성에 관한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임을 가르쳐야 한다. 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은 아름답고, 고귀해서 잘 보호하지 않으면 아주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과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즐기는 것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죄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 더럽고 추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아름다운 성을 가르쳐야 한다. 성에 대해 성경적으로 배워야만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다음세대의 또 다른 위기는 성적 혼란이다. 하나님이 주신 남자와 여자라는 성은 선물이다.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 혹은 여자로 구별해서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올바르게 배워야 한다.

둘째,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결혼과 가정, 생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혼란한 세상의 성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주입되기 전에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은 명령이자 축복이다. 이 가르침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다.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와 성에 관한 대화를 하면 사춘기에도 성에 대해 소통할 수 있다. 바로 그때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믿음의 순결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가 되겠다고 다짐한다.

셋째, 성경적 성교육이 쾌락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성에 대한 무지함이 오히려 성적 시험에 빠지는 계기가 된다. 20세기 초 교회에 ‘성은 더럽다’는 왜곡된 생각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는 무언의

시지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문화로 인해 무너지는 하나님의 기준을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

다섯째,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성교육이 자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많은 부모에게 받은 질문이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가 성교육을 통해 성에 눈을 뜨면 어찌죠?”다. 우리가 도둑질이 나쁘다고 가르친다고 도둑질을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성경적 성교육을 한다고 성에 눈을 뜨는 게 아니다. 오히려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남자와 여자의 존재 이유, 창조의 목적을 배우게 된다. 성경적 성교육의 목적은 잘못된 성문화를 밀어내는 힘을 기르는 것이다.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더는 다른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을 성경적 성교육으로 먼저 점령하는 게 관건이다. 아이들이 세상의 성문화를 배우기 전에 성경적 성교육을 먼저 받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성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여섯째, 자녀들이 미래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이기에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하다. 최고의 신랑신부 수업은 부모의 삶이다. <잠언>에

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엄마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가정을 세우는 믿음의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아빠를 통해 본다. 성인이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현숙한 여인, 믿음의 남자가 되는 게 아니다. 훈련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여자와 남자가 된다. 겉모습만 어른처럼 보인다. 현숙한 여인, 믿음의 남자는 가정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통해 훈련될 수 있다. 현숙한 여인과 믿음의 남자가 이루는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 자녀들이 미래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도록 부모가 교육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성교육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우리 아이를 위한 성교육 1편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풍당 QR



65. 사순절 어떻게 보낼까요?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3월 6, 8일
본문 '시 46:1~3, '시 48:1~5'

예루살렘 시온 산.

1. <시편> 기자는 시온 산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시편> 48편 1~5절 말씀을 읽고 시온 산을 설명하는 게 아닌 말을 골라 보세요.
① 거룩한 산 ② 위대한 왕의 성 ③ 크고 높은 탑 ④ 온 세상의 기쁨이 되는 곳
2.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나요? <시편> 46편 1~3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을 찾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기후원 약정행사 앞두고

또 하나의 ‘더 멋진 마을’

말라위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 개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3월 16일(토)과 17일(일)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02-2271-2246) 또는 NGO 더멋진세상 홈페이지(abetterworld.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구촌 곳곳을 다니면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가는 곳마다 깨끗한 식수를 마실 수 있는 우물이 생기고,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생기고 있다.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도 세워지고 있다. 지구촌 이웃들의 새로운 생활 터전을 마련해서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주고 있다. 드디어 아프리카 말라위에도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이 개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지난 2월 29일 진행된 말라위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 개원식.

지난 2월 29일(목), 아프리카 말라위 블랜타이어시(市)에서 40km 떨어진 시골 지역 치린디메 마을에서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 이하 ECD 센터)’ 개원식이 있

었다. ECD 센터는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으로 시작한 영유아 교육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립된 교육기관이다. NGO 더멋진세상이 2023년

부터 2025년까지 약 3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ECD 센터 개원식에는 한국국제협력단 탄자니아 사무소 신만식 소장과 신원석 목사(NGO 더멋진세상 국장), 말라위 여성지역개발사회 복지부 장관 Jean Sendeza, 현지 정부 주요 인사 50여 명, 말라위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말라위 여성지역개발사회복지부 장관 Jean Sendeza가 대한민국과 NGO 더멋진세상에 다음과 같이 감사 인사를 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차세대 교육 지원에 힘써주시는 대한민국과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NGO 더멋진세상의 협력이 말라위 시골 지역 차세대 교육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진행하는 ‘ECD 교육’에도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거로 예상합니다. 이번에 개원한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이 아이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밝은 미래를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ECD는 ‘Early Childhood Development(영유아발달)’의 약자다. ECD 센터는 만 3~5세 영유아들의 총체적 교육기관을 지칭한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실시하는 ‘더 멋진 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이다.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밝은 미래를!

아프리카 말라위 시골 지역에 전체 인구 85%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1만3천여 개의 영유아 교육기관이 있지만, 열악한 시설과 교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 부재, 국가 지원 부족 등으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겨우 66.11㎡(20여 평) 남짓한 현지식 주택에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마을 출신 교사들이 영유아 70~80명을 돌보고 있다.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없이 국가나 외국 NGO 단체에서 지원하는 영양 가루에 의지해 한 끼 정도 배를 채우고 귀가하는 보호시설 역할만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개원한 ECD 센터는 현지식 맞춤형 영유아 교육기관이다. 영유아발달에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사 전문 교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말라위 정부 관계자들과 지역사회 리더들은 ECD 센터가 영유아 교육기관의 좋은 모델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의 이름은 학부모들이 직접 작명했다. ECD 센터는 연령별로 3개의 교실과 다목적실, 태양열 전기와 수도시설 등을 갖춘 현대식 영유아 교육기관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만 3~5세 아동 117명이 재원 중이다. 이곳에서는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문해교실,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ECD 센터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총체적인 교육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 말라위 지부에서는 ECD 센터 개원식을 시작으로 ECD 교육 발전과 개발을 위해 현지 정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밝은 미래 유치원의 그 이름처럼,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밝은 미래를 선물하는 영유아 교육기관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ECD 센터 개원식을 다녀와서

더 멋진 세상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말라위에 도착한 첫날,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뒤덮여 있고,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것 같았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며 ‘밝은 미래 유치원(Bright Future ECD Center)’ 개원식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렸다. 이곳은 기후변화 탓에 우기임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은 농작물이 말라가고 있었다. 말라위 사람들은 이를 ‘춘곤기’라 불렀고, 이 때문에 크고 작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ECD 센터 개원식 전에 내린 비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큰 축복이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 온 비처럼, 작고 가난한 블랜타이어 마을에 세워진 ECD 센터는 어린 자녀들의 미래와 마을의 변화를 기대 온 주민들에게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작은 시골 마을에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 ECD 센터가 개원한다는 소식이 이웃 마을까지 퍼졌다. 600여 명이 찾아와 ECD

센터 앞마당을 가득 메울 정도였다. 말라위의 보건과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장 서열이 높고, 영향력 있는 추장 등 정부 및 지역의 리더십이 참석했다. 마을의 리더들과 위원회의 표정이 비구름을 뚫고 쏟아져 내리는 햇살같이 밝게 빛났고, 기쁨이 가득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젝트로 지어진 말라위 ECD 센터는 단기선교사로 다녀간 임혜빈 선교사의 눈물 어린 간증과 기도 덕분에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5년 전, 마을 위원회가 십사일반 힘을 모아 지은 센터 건물이 너무 열악했기에 그곳에서 2년 동안 사역했던 임혜빈 선교사가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좋으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 이후 NGO 더멋진세상이 KOICA에 ‘말라위 ECD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 사업이 채택돼 지난해

부터 건축을 시작했고, 지난 2월 29일 개원식을 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지난 13년 동안 37개 국가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청지기 역할을 해 왔다. 이 시간에도 24개 국가에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의 사역을 하고 있다. 첫째, 말라위 블랜타이어 마을 같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극빈 마을들을 찾아가 그들 스스로 마을을 변화시키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있다. 희망이 열매 맺도록 총체적(영육) 변화를 지향하는 지역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마을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다.

둘째,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늘어난 자연재해, 분쟁과 전쟁 등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돌보며 인도적 차원의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간다 남수단 난민과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몰도바와 루마니아의 우크라이나 난민 등을 섬기고 있

다.

지난 2010년 10월 10일, 온누리교회 창립 25주년 행사에서故 하용조 목사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다.

“선교사를 보내 인종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연재해로 무너지고, 소외된 나라들과 민족들, 가난과 부패로 버려진 여자들과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돕고,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가르쳐 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바로 그곳에 더 멋진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

이 부르심을 따라 NGO 더멋진세상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맑은 바 사명 다할 것을 다짐한다.



신원석 목사
(NGO 더멋진세상 국장)

신생사역팀을 소개합니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

그 어려운 상황에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도시 미자립교회를 도와주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수많은 도시 미자립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다.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도시 미자립교회도 정말 많다. 누군가는 위기에 놓인 도시 미자립교회를 도와야 한다. 바로 그 일을 하는 신생사역팀이 있다.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사회선교본부 소속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이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벌써 도시 미자립교회 21곳을 탐방했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이 탐방한 교회들의 사연을 바탕으로 이 사역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를 진단했다.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관악금천공동체 은혜다락방이 도시 미자립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서울시 도봉구에 있는 예수비전교회는 개척한 지 12년 됐다. 10명이 안 되는 성도들과 99.17㎡(30평) 남짓한 예배당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다. 예수비전교회 박형미 목사는 매년 겨울만 되면 난방비를 걱정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들이 따뜻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미리 난방하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하다. 이 같은 고민이 비단 예수비전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난방비, 월세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교제할 경제적 여유조차 없는 도시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에서는 도시에 있는 성도가 10명 미만인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들을 찾아가 돕는다. 도시 미자립교회들이 자립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도

시 미자립교회들이 협력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역할도 한다.

교회 규모는 작아도 도시 미자립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 아프고, 외롭고, 연약한 이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수비전교회는 매일 오후 5시에 노방전도를 나간다. 전도를 마치면 교회에 모여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한다. 배가 고프는 청년들이 예수비전교회를 찾아와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오랜 시간 정신 질환을 앓던 청년이 예수비전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일도 있었다.

부산 고백교회는 교회 건물을 더 어려운 교회와 공유하고 있다.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면 마땅한 예배당이 없는 교회에게 장소를 빌려준다. 평일에는 교회가 한부모나 조손가정 아

이들이 노는 작은 도서관으로 변신한다.

희년중앙교회는 수십 년을 알코올중독자로 지냈던 노숙인에게 교회를 제공했다. 놀랍게도 그 노숙인이 교회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이제는 술을 끊고, 말끔한 차림으로 교회 문 앞에서 안내 봉사를 하고 있다. 변화된 노숙인의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 미자립 교회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곳에서 따뜻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않지만, 도시 미자립교회에서 지역의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예수님을 만난다. 바로 이것이 도시 미자립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에도 사역을 이어가는 이유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은 올해 세 가지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첫째, 사회선교본부 사역팀과 도시 미자립교회를 연결하는 것이다. 이

웃사랑팀, 엔젤트리, 사르밧 프로젝트 등과 도시 미자립교회를 연결할 계획이다. 둘째, 도시 미자립교회 현황 조사를 하고, 탐방할 예정이다. 도시 미자립교회를 직접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목적이다. 셋째, 도시 미자립교회와 온누리교회 다락방을 '1다락방 1사역'으로 연결할 생각이다. 수도권에 있는 도시 미자립교회를 매주 주일 온누리교회 순이 돌아가며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시 미자립교회와 온누리교회가 동역자가 되면 큰 변화가 나타날 게 자명하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 도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됩니까?”라고 물었더니 “항상 소수의 성도와 예배드렸는데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라고 고백했다.

국중대 팀장(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도시 미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도시 미자립교회를 탐방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는데 92세 되신 어르신도 시각장애인의 식사를 돕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한 식탁에서 교제하는 일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은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도시 미자립교회를 도와주십시오. 도시 미자립교회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선교비를 지원하고, 예배와 전도에 전념하도록 힘을 보태주십시오.”

문의: 국중대 팀장 010-8227-9751

온누리교회에 보내는 편지



박형미 목사
(예수비전교회)

다. 하나님이 그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수비전교회 심규철 형제는 10년 동안 정신 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골방에 칩거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심규철 형제를 예수비전교회로 보내시고, 기도하

는 가운데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심규철 형제의 아버지가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픈 자식을 바라보면서 힘겨워했을 그의 아버지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최근 예수비전교회 청년이 1명에서 7명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5시 청년들과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3시간 동안 기도 모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이 닿는 한 배고픈 청년들에게 맛있는 집밥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육신을 배불리고, 영도 살찌우는 66세 행복한 목사가 되렵니다. 한겨울에 노방전도를 하고, 손과 발이 쪼그 열어도 청년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

서울의 사각지대에서 잔칫집으로!

려고 찬물에 손을 담가 채소를 씻고, 저녁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전도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교회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와 온기가 느껴지기에 보잘것없고, 누추한 곳에서도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방향하는 청년들과 버림받은 것 같은 한부모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행복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청년들과 함께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녁마다 맛있는 밥을 지어서 함께 식사하도록 지원해 주신 온누리교회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에 감사드립니다. 매월 전도 물품 구입비가 50만 원 정도 드는데, 아끼지 않는 사랑의 후원 덕분에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도시 미자립교회는 서울의 사각지대입니다. 서울의 사각지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일이 쉽지 않은데, 늘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 이영근 장로님과 국중대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의 수고 덕분에 예수비전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기도응답을 받아서 날마다 잔칫집입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위임목사님과 성도님들, 도시 미자립교회 지원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물 떠온 하인만 아는 은혜 ‘여성사역!’

가정과 교회,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 흠날린다

봄 내음 물씬 풍기는 3월이다. 여성사역에 동참하기 딱 좋은 계절이다. 이 시대 마리아들이 여성사역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정과 교회, 사회에 흠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호영 목사(여성사역본부장)는 “더 많은 여성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3월 10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여성사역 안내 부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2024 봄학기 여성사역 스쿨 참가신청을 받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함도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왜 더 많은 여성이 교회로, 예배당으로 와야 하는지, 그 유익과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다. 다음은 조호영 목사와의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여성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

여성사역에서는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사역에서는 이 시대 마리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가정과 교회,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이 함께 수요여성예배를 드리고 여성사역 스쿨과 기도 모임에 참여했다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될지 벌써 기대가 큼니다.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2000년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해서 바른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여성사역의 비전입니다. 여성사역에서는 ‘한 여성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하면 ‘수요여성예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요여성예배만이 가진 특징 그리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수요여성예배는 여성을 위한 맞춤 예배입니다. 설교 주제와 예배 방향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와서 쉬고 회복,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서빙고와 양재뿐만 아니라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모든 캠퍼스에서 수요여성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와 기도의 회복을 갈망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요여성예배는 주일예배와 다릅니다. ‘여성’이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특화된 예배입니다. 큰 은혜와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다가 수요여성예배에 나와서 은혜 받고 남편을 전도한 여성, 유학 간 딸을 위해 걱정과 불안함으로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는 다음세대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로 변화된 여성,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수요여성예배에 와서 깊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회복한 여성, 안 믿는 친구 데려오기가 참 좋다고 열심히 전도하는 여성 등 정말 특별한 은혜와 간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요여성예배를 경험하지 못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여성예배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만 아는 은혜, 경험한 자만 아는 바로 그 은혜를 수요여성예배 현장에 오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온누리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특화된 양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서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과 암송, 이웃 섬김, 선교, 영혼 전도를 핵심 가치로 삼고, 여성들을 위해 특화된 양질의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에서 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가

정과 교회, 사회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흠날리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의 특화된 양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더 깊이 배우도록 돕습니다. ‘수요여성예배’, ‘성경일독학교’, ‘QT 스쿨’, ‘QT 나눔방’, ‘더 깊은 묵상’, ‘성경암송스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도하는 여성들을 세웁니다. ‘여성기도학교’, ‘무릎선교기도학교’, ‘마리아행전 기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안나중보기도팀’도 있습니다. 특별히 매년 6월에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여성들이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마리아행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나의 기도를 넘어 나라와 민족, 열방까지 마음에 품으며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중보의 시간입니다.

셋째, 전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매년 1회 ‘여성맞춤전도집회’를 열고 가족들과 지인들을 전도하는 장(場)을 마련합니다. 온누리교회 등록을 원하는 새가족들을 교육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도록 돕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좋은이웃모빌팀’이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고 있습니다.

넷째, 성경적 여성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는 방법을 배우며, 은사를 개발하는 스쿨을 운영합니다. ‘좋은어머니스쿨’, ‘영

상 스쿨’,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워킹마리아’ 등이 있습니다.

여성사역만의 특화된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3월 10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여성사역 안내 부스’를 설치합니다. 관심 있으신 여성들이 오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사역 안내 부스에 ‘중보기도함’도 설치합니다.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성도들이 기도제목을 넣어주시면, 기도훈련을 받은 전문중보기도자들이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대 마리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믿음의 여성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예수님 탄생부터 죽음, 부활까지 그 중요한 시기마다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옥함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이들도 여성이었습니다. 이 시대 마리아들이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여성이 여성사역에 동참해서 믿음의 여인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모든 여성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고, 가정과 교회, 사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수요여성예배 안내

캠퍼스	시간	장소	문의
서빙고	오전 10시 30분	본당	02-3215-3201
양재	오전 10시 30분	사랑홀	02-570-7277
부천	오전 10시 30분	본당	032-322-9686
수원	오전 10시 30분	본당	031-895-6500
대전	오전 10시	본당	042-825-3642
남양주	오전 10시 30분	본당	031-565-9686
평택	오전 10시 30분	본당	031-651-9680
인천	오전 10시 30분	본당	032-437-9686
강동	오전 10시 30분	본당	02-475-9686
양지	오전 10시 30분	박모세홀	031-331-8171
영종	오전 10시 30분	백향목홀	032-752-7937

서빙고 여성사역 스쿨(상반기)

요일	스쿨	일정	장소	문의
화	더 깊은 묵상	3월 5일~4월 9일	콘서트홀	02-3215-3677
	영상스쿨	3월 12일~4월 30일	한동홀	02-3215-3667
수	큐티스쿨	3월 13일~4월 24일	순형홀	02-3215-3677
목	여성기도학교	3월 7일~5월 23일	한동홀	02-3215-3677
	무릎마리아 기도회	3월 14일~5월 30일	두란노홀	02-3215-3227
금	좋은어머니스쿨	3월 15일~5월 3일	콘서트홀	02-3215-3247
	성경암송	3월 22일~4월 26일	홍보관	02-3215-3667

맛있는 말씀 해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고후 7:10)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다. 갑자기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근심 속에 진정한 위로를 나눌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교회공동체야말로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는 친교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울은 신앙생활에서 모든 근심이 같은 것은 아니라고 구분한다. 즉, 믿음의 근심도 있으나 세상의 근심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심과 세상 근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고린도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는 환란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바울서신을 볼 때 고린도교회에는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의 동역자 디도 편에 고린도편지(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드로아에서 디도가 돌아오지 않자 바울이 걱정하다가 마케도냐로

건너가 사역을 시작했다(고후 2:13). 겨울에는 여행을 할 수 없기에 먼저 마케도냐에서 복음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린도교회는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다. 바울의 물질문제, 고난문제, 사도권문제, 신학적 문제를 걸고,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했던 것이다.

이러한 도전과 시련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부터 7장 4절을 할애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다시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소개하고 있다. 고린도교회 문제로 바울은 지치고 힘들었다. 하지만 이때 극적으로 디도가 고린도교회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것은 고린도교회가 자신의 눈물의 편지를 읽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죄를 뉘우치고, 거짓 교사를 내쫓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온 것이다. 바울은 낙심 가운데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을 느꼈

을까?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자 노심초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고린도편지를 쓴 것에 후회함도 있었던 것 같다. ‘굳이 친밀한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편하게 했는가?’ 하는 자격지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울은 확고했다. 인간의 양심이 잠깐 불편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원하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고린도후서>를 볼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바울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인간적인 좋은 관계만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언젠가 사망에 이르거나 회개하지 못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낙심할지라도 믿음의 근심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전할 때 성도는 바울의 마

음처럼 전해야 한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식의 교만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동시에 높은 위치에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야단치듯이 전하면 안 된다. 오히려 바울처럼 죄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사랑으로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말씀에 비취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편에서 죄를 미워하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만든다(11절).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진리보다 인간의 욕심에 근거를 두기에(약 1:15)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며,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할 뿐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진실한 간구

3월 11~17일
(시편) 50:1~55:15



묵상포인트 1:

<시편> 50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 준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서원한 것을 신실히 이행하는 순종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참된 예배에 대해 묵상하자.

50편: 전능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는 심판장이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기에 우리에게 언제나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자에게 서원한 것을 갚으며, 환난 날에 그분을 부를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악인은 책망받을 것이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분의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

묵상포인트 2: <시편> 51편과 52편은 죄와 연약함,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회개

기도가 어떠한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묵상하자.

51편: 51편의 표제는 “다윗이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다(삼하 11:1~12:25).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신다.

52편: 52편의 표제는 “에돔인 도엑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다(삼상 22장). 하나님은 악을 꾀하는 포악한 자와 거짓을 사랑하는 자를 영원히 멸하신다. 악인은 자기 재물을 의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는 감사하며,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

묵상포인트 3: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악인들이 핍박할 때도, 역울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 <시편> 기자의 진솔한 고백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떠한지 묵상하자.

53편: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악을 행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흠으시고 버리실 때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54편: <시편> 기자는 포악한 자들로부터 자

신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한다. 자신을 돕는 이요,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원수를 멸해 주시기를 구한다.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원수를 갚아 주시는 주님께 낙헌제(희생제)를 드리며 찬양하겠다고 한다.

55편: <시편> 기자는 악인의 암재 때문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는 사망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 편히 쉬기를 원한다. <시편> 기자는 자기를 책망하고 오만하게 구는 자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다녔던 친구라는 사실을 탄식하며, 그들을 멸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매일 세 가지 정도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자. 예배할 때 그 기록을 읽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참회할 죄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마음에서 돌이켜 회개 기도를 드리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죄악을 행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간구하자. 악이 번성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자.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괴로움을 정직히 토로하고, 그 상황을 이겨 낼 힘 주시기를 간구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K형제를 위해서!

안산M센터 아랍어예배 K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요 K형제는 무슬림 청년입니다. 튀니지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경찰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용직을 하느라 수입이 넉넉하지 않고, 친구가 많지 않지만,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K형제에게는 중고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하면서 아랍어예배 공동체와 유대감을 갖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행히 K형제는 기독교 신앙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때나 교제할 때 다른 무슬림 청년들처럼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함께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K형제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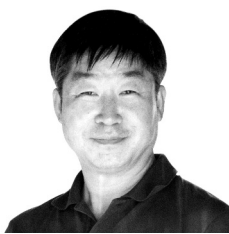
K형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해주시고요. K형제는 현재 예수님에 대해 알지만, 구주로 믿지는 않습니다. 아랍어예배 공동체와 교제하면서 복음을 나눌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시고요.

/ 김예달 전도사(안산M센터)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언덕 위 그곳은 세상의 빛이었다!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인천에 쇠뿔고개(우각로)가 있다. 우각로를 따라가면 창영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창영감리교회가 연이어 나타난다. 영화초등학교 내에 영화국제관 광고등학교가 있고, 영화초등학교 뒤에는 인천산업정보학교가 있다. 이 일대에는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서 한때는 주민 밀집도가 대단히 높았다. 학생들도 많았다.

창영초등학교는 1907년 설립되었는데 인천 최초 공립보통학교였다. '一'자로 된 고풍스러운 학교 건물은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919년 3월 6일 인천지역 최초 3.1만세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우리나라 미술사를 학문으로 발전시킨 우현 고유섭,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최영섭, 인천시립박물관 초대 관장이경성, 전 대법원장 조진만 등이 이 학교 출신이다.

영화초등학교는 1893년 내리교회를 담당하던 존스 선교사가 설립했다. 영화여학교로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영화초등학교에는 옛 교사(校舍)가

보존되어 있다. 영화초등학교 옆에는 창영감리교회가 있고, 교회 옆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여선교사합숙소(구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가 있다.

1895년 존스 선교사가 인천을 선교기지로 주목하고, 우각리 일대 땅을 매입했다. 그 땅에 목사관과 예배당을 건립하고, '에즈베리 언덕'이라 이름 붙였다.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거처할 집이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선인 건물을 임차해 생활했다. 그러나 한국식 주택구조에 익숙하지 않았던 선교사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장기적으로 정착해서 선교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풍토병뿐만 아니라 음식, 주택 등이 매우 달라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거기에다 선교사들이 하고자 했던 의료선교, 교육선교를 위해서라도 한국식 주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서양식 합숙소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여선교사들의 어려움이 더 컸다.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인천에서 서양식 합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모금을 했다. 1904년에는 남선교사합숙소, 1905년 여선교사합숙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지금 인천세무서가 들어선 자리에 남선교사합숙소가 있었다. 여선교사합숙소는 미국에서 비누를 만들어 큰돈을 벌었던 P&G

사의 매리 갬블(Mary Gamble) 부인의 후원으로 건축되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 건물을 '갬블홀'이라 불렀다.

각 교파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이 지역을 나눠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마다 선교사촌을 마련하고 서양식 주택을 지어 거주했다. 서울, 인천, 수원, 개성, 평양, 선천, 의주, 영변, 원산, 함흥, 춘천, 원주, 대구, 부산, 마산, 진주, 목포, 광주, 순천, 전주, 군산, 공주 등에 선교부와 선교사촌이 있었다. 선교부를 거점으로 주변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해 나갔다. 선교부가 있던 지역에는 예외 없이 언덕 위에 선교사촌이 형성됐다. 소위 '양관'으로 불리는 서양식 주택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들어섰다. 주택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도 함께 들어서 있었다. 언덕 아래 살던 한국인들이 이국적인 풍경을 신비롭게 바라보거나 구경거리로 생각해서 찾아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배산임수(背山臨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풍수적인 이유를 들지만, 실질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우리나라는 겨울이면 북쪽에서 시베리아 찬 바람이 분다. 집 뒤에 있는 배산(背山)이 이 바람을 막아준다. 산에서 마을로 개울물이 흐른다. 물은 생활용수가 되어 주었다. 우물과 빨래터가 마을 공동으로 마련되었다. 물이 흘러서 마을 앞에 펼쳐진 농경

지를 적시고, 농사를 짓도록 도와준다. 물과 물이 모여 강을 이룬다. 임수(臨水)에 해당한다. 임수는 교통로 역할도 했다.

서양은 오랫동안 기독교적 문화에 근거해 살았다. 마을의 입지 조건도 성경에 근거를 두었다. 교회를 지을 때도 성경에 근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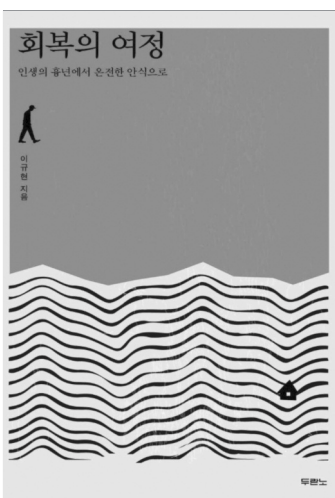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 5:14-15).

"여호와와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 144:2).

초창기 성당이나 교회는 모두 언덕 위에 있었다. 마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교회 종소리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을 수 있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등잔대 위에 올려진 등불처럼 높은 곳에 올려져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했다. 때로는 길잡이 역할도 했다. 산성이요, 요새처럼 마음의 평안도 주었다.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배가 되어 주었다. 언덕은 등잔대였다. 언덕 위에 지은 예배당, 사택, 병원, 학교는 세상의 빛이었다.

두란노 신간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여정>

이규현 저 | 두란노 | 1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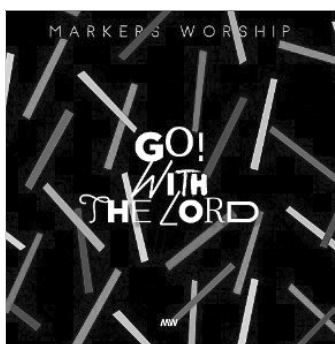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좇아서 살지만, 그 열심히 안에는 늘 불안이 있다.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지만,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누가복음> 15장이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에서 말이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 기대했다. 그런데 집을 떠난 탕자는 생각보다 빨리 고갈됐다. 방황하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잘못을 깨달았다.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복을 경험했다. 자녀라는 지위를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나님은 절망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인생의 방향을 끝내고,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의 여정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오늘의 hymn(찬송가, 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 계시네'
마커스 위십 곡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마 1:23).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기 때문이다. 문제 앞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찬양 '주님 계시네'는 "흘러온 순간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 계시네"라고 노래하고 있다. 이 찬양 고백처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는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된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삶을 돌아보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삶을 그분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한다.

찬양 '주님 계시네'는 QR 코드, 멜론, 지니, 벅스 등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플라스틱,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1)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특징: 투명하고 내열성이 높아 음료수, 식품 용기로 사용
재활용 가능 여부: 가능
인체 영향: 안전성이 높지만, 고온에서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이 있음

2)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특징: 내구성이 높고, 화학물질에 강해서 세제 용기, 빨대 등으로 사용
재활용 가능 여부: 가능
인체 영향: 안전성이 높음

3) PVC(폴리비닐 클로라이드)

특징: 유연하고 내화학성이 높아 비닐, 우비, 장난감 등으로 사용
재활용 가능 여부: 제한적
인체 영향: 프탈레이트 함유로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음

4)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특징: 늘어나고 밀착성이 좋아 비닐봉지, 식품 포장 등으로 사용
재활용 가능 여부: 가능
인체 영향: 안전성이 높지만, 고온에서 유해물질 용출 가능성 있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와 부모 1,181명 참석



지난 3월 6일 진행된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에서 차세대 교사들이 찬양하고 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교사,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3월 6일(수)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파워스테이션의 찬양, 이광순 장로의 기도, 강부호 목사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집회가 진행됐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1,181명이 참석했다.

설교는 강부호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단 11:31~32)을 주제로 했다. 강 목사는 “차세대를 교육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예배를 바르게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연구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사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김한나 교사(서빙고 영아2부)는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도록 더 많이 기도

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했고, 윤영은 교사(양재 소년2부)는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경희 교사(서빙고 초등2부)는 “교사로서의 본분을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본질을 잊지 않고,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 4’

3월 10일 오전 10시 양재 주차장에 헌혈 버스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날’ 행사가 열린다. 3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버스(2대)가 온다. 생명나눔의 날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헌혈을 신청하고, 양재 원형카페에서 사전문진을 한 다음, 담당자의 안내를 따라 헌혈하면 된다. 시간별로 20명을 선착순 마감한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 홍하영 기자

트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이하 생명나눔의 기적)가 3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시즌4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방문하면 된다. 헌혈하기 전에 ‘온누리교회’ 또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야 생명나눔의 기적 인원으로 집계된다(한마음혈액원만 해당).

부채탈출 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사회선교본부 경제정의팀에서 ‘부채탈출 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경적 재정관리, 부채 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주호 팀장(010-2819-7675)이나 이진수 총무(010-8543-4645)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문제와 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돕는 사역이다. 전문기관과 함께 성도들이 건강한 재정관과 계획을 수립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이주호 팀장은 “경제 관련 직업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사역하고 싶은 성도라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문의: 010-2819-7675

/ 김다애 기자 daa2@onnuri.org

노래로 배우는 성경이야기!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고고바이블송’

다음세대에게 성경을 친숙하게 가르치는 방법이 있다. 기독교 OTT ‘풍당’에서 만날 수 있는 ‘고고바이블송’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고바이블송’은 노래로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어 10편, 다국어(미국, 일본, 스페인,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등) 60편 제작 예정이다. ‘고고바이블송’ 음원은 동요 ‘아기 상어’와 ‘핑크퐁’을

만든 이드레코즈가 제작했다.

음원은 ‘천지창조’, ‘노아의 방주’,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성’, ‘다윗과 골리앗’, ‘용감한 다니엘’, ‘12 제자들’, ‘예수님’, ‘키즈팝 부활절송’, ‘키즈팝 성경목록 송’ 제목 순으로 발표한다. 현재 한국어는 4편까지, 스페인어와 태국어는 3편까지 공개됐다. ‘풍당’이나 CGN유튜브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순장학교 수강생 모집

순장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순장학교는 3월 31일부터 6월 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5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양재온누리교회 순장학교는 3월 31

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드림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3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010-7736-6130)

양재(010-4172-0850)

온누리 전도학교 개강

온누리 전도학교가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일요주일 현장 과정은 3월 17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 화요 현장 과정은 3월 19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목요 온라인 과정은 3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된다.

양재온누리교회는 3월 17일부터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 혼합 과정

이 진행된다. 부천온누리교회는 목요 온라인 과정이 3월 21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토요 현장 과정 3월 23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참가신청은 3월 16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서빙고(010-9724-2258)

양재(010-3010-0156)

부천(010-3949-3674)

57기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가 개강한다. 4월 6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영종온누리교회에서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진행한다. 결혼 12년 차 이하 부부가 대상이다. 40가정을 선착순 모집한다. 회비는 25만 원이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 젊은부부학교’를 검색해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남편(010-5785-4079)

아내(010-9469-5143)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요한계시록 집중 탐구여행’

열린다성경 스테디투어 ‘요한계시록 집중 탐구여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7월 19일(금)부터 27일(토)까지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공부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화(010-4902-1022)로 신청하면 된다.

‘천년왕국,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백보좌 심판’ 등을 주제로 류모세 목사와 함께 공부한다. 문의: 010-4902-1022

탈북민사역과 통일선교 돕는다!

한누리, ‘에하드 기도회’, ‘한국어 수업’

한누리사역팀이 탈북민사역과 통일선교를 위해 부르짖는 ‘한누리 에하드기도회’와 ‘한누리한국어수업’을 하고 있다.

‘한누리 에하드 기도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터공동체 예배당(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한터공동체 7층)에서 열린다. 탈북민 전도에 관심 있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누리 한국어 수업’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한누리통합팀 사무실(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6층)에서 수업한다. 6세 이상 25세 미만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탈북 자녀도 가능)가 대상이다. 수강 신청은 3월 15일까지 구글폼(QR 참고)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3463-9686(에하드 기도회) 010-9956-3451(한국어 수업)



3월 화요성령집회 ‘WHY JESUS’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3월 화요성령집회가 ‘WHY JESUS’를 주제로 열린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온누리교회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3월 화요성령집회 ‘WHY JESUS’

에서는 12일 정한호 목사 ‘FREED OM:자유’ (고후 3:12~18), 19일 이서진 목사 ‘THE CROSS:십자가’ (사 53:4~7), 26일 최성민 목사 ‘RECOVERY:회복’ (겔 37:1~1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우측 QR 코드를 찍으면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진경 자매(J4U청년부)

나도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

J4U청년부에 등록하고, 주변의 지체들에게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일대일) 과정을 추천받았다. 학창 시절 했던 멘토·멘티 프로그램과 같이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올바른 제자의 길을 훈련받고,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과정이라고 들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남아있던 시기였고,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일대일을 했다. 항상 양육자님이 내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여러 상황이 있었지만, 일대일을 할 수 있었다.

일대일을 시작할 때마다 한 주간 감사제목과 말씀 암송을 했다. 나에게 그 시간이 참 귀했다. 가볍게 지나갔던 순간들도 돌아봤더니 큰 감사였다. 양육자님과 감사를 나누고, 내 삶에서 누렸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늘 역사하고 계셨음을 기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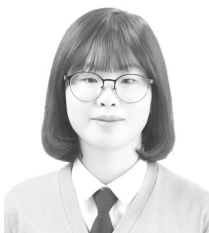
일대일은 단지 신앙의 기초를 다져서 정립하는 과정이 아니었다. 신앙생활의 아주 좋은 습관을 다지는 영적 훈련이었다.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줬다. 성경통독과 암송에 대한 깊은 마음도 주셨다. 비록 꾸준히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항상 나를 기뻐주시고 격려하셨다.

일대일 하는 기간에 모태신앙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평생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고민했다. 그때 양육자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다시 일어나 영적 전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일대일 내용에 따라 한 단계씩 회복하는 경험도 했다. 말씀으로 바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양육자님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셨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양육자님에게 받은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일대일 과정이 끝나갈 즈음에는 나도 누군가의 신앙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좋은 양육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나를 양육해 주신 양육자처럼, 나도 제자를 양육하고 사랑을 전하고 싶다. 나의 동반자가 또 다른 동반자에게 계속 사랑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한다.

■ FA 21기 선교사 간증



/ 신한서 선교사(하늘대학부)

이미 승리한 선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선교를 하고 왔을 수도 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뒤로한 채 FA 21기를 신청했고, 훈련을 마친 다음에는 선교 동역자 만들기에 바빴다. FA 21기 과정에서 나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확실히 배운 게 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점이 특별하지만, 특별한 일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선교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레바논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였고, 나를 먼저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영혼들을 품게 하셨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레바논에서 이집트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난민들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때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셔서 레바논에 다시 갔을 때 그 땅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었다.

나는 FA 21기 기도카드에 적었던 기도제목을 응답받았다.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고, 사랑을

담대하게 선택하는 용기와 믿음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동역자들과 함께 나아가는 법도 배웠다. 함께하는 선교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FA 21기를 잘 마칠 수 있었다.

FA 21기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다.

첫째,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찾고 계시고, 그 양이 돌아올 때 기뻐 뛰면서 잔치를 열어 주신다. 그 양이 예수님의 날빛이 되어서 사랑을 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성령 충만할 때 사랑할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연합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선교는 내가 준비될 때 가능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는 자가 선교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FA 21기를 돌아봤을 때 나는 실패한 선교를 하고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실패한 선교를 뒤집어 이미 승리한 선교로 사 용해주실 것을 믿는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송향기 성도(지구교회)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참여한 두란노어머니학교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평택에서 서빙고까지 오가는 길이 쉽지 않았지만, 꼭 듣고 싶다는 갈망이 있었다. 두란노어머니학교가 치유하고, 성장하며, 준비하게 하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다. 그 고난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로 더 큰 고난을 당하며 자랐다. 자존감이 밀바닥이었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몰랐다.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교단체에 헌신하며 살았다.

그러나 여전히 자존감이 낮았고, 교회에서도 대인 관계의 어려움을 겪었다. 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았고, 그저 도피하듯 하나님께 매달렸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훈련을 거듭하게 하셨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고시에만 집중하다가 남편을 만났다.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매번 다투고 갈라지던 부모님과 함께 자라서 ‘남편과 이루는 가정은 같은 아픔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

다’는 각오로 열심히 두란노어머니학교 수업을 들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가난하고 외롭던 어린 시절을 직면했다.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사람의 인정에 종노릇 하던 내 모습이 보였다. 늘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조원들의 나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편지를 쓰던 날 어머니가 여행 가서서 홀로 식사하시는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버지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찾아가다.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다.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하느라 몸도, 마음도, 얼굴도 상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사랑해 주기보다 아름답고 당차게 사는 어머니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렇게 안 살 것’이라는 각오만 일삼는 바리새인 같은 딸이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어머니를 용서하게 되었다.

부모님을 용납하고, 사랑해 드리기로 마음 먹었더니 평안이 찾아왔다. 악에 받쳐 ‘내 부모님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부모님과 남편을 십자가 사랑으로 용납하는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의 어머니가 되고 싶다.

■ 선교지에서 온 편지



/ 그렉, 박미리 선교사

위기가 기회다!

3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것이 멈췄다. 우리는 자카르타에서 익투스 크리스천 학교와 자카르타 교회 교육부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곳곳에 바리케이드가 쳐지고, 시끄럽던 동네가 조용해졌다. 정부 방침에 따라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교회도 가지 못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각자 방에서 수업을 듣고, 남편은 방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냈다.

모든 게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때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에서 줌(Zoom)으로 열었던 모임에 참여했다. 그 주제가 ‘위기가 기회’였다. 그 모임에서 들었던 “로마 군인들이 세계 정복을 위해서 어디서든지 도로를 잘 만들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라는 메시지가 인상 깊었다. 또 “우리의 육체는 갇혔지만, 우리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는 메시지에 큰 힘과 도전을 받았다.

그 이후에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강사 과정을 온라인으로 들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모든

활동이 멈춰있는 때라 집중해서 할 수 있었다.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골방에서의 사역이 활짝 펼쳐지게 하셨다. 강사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료하고, 감사증을 목에 걸었을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

지금 우리 가정은 미국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남편 그렉 선교사는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의 채플린으로 세워져서 사역하고 있다. 행정팀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는데 기도를 부탁한다. 나는 ‘어? 성경이 읽히지 않네!’ 강의와 스쿨을 진행 중이고, 창조과학회 스쿨 조장으로도 섬기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큰딸은 미육군 특수정보요원으로 훈련받고 있고, 둘째 아들은 미 해병대 엔지니어로 복무하고 있다. 막내아들은 플로리다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엄청난 위기를 맞았지만, 오히려 그 위기가 우리 가정에 기회와 축복이 되었다.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 오실 날까지 해 나갈 것이다. 끊임없이 기도와 후원을 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2000선교본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

장로칼럼

어느 장로의 기도



정병균 장로
(영등포로공동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 15:7).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주님! 130년 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 주시어 참된 자유와 번영,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 국력 6위의 국가로 세워주셨으며, 세계 선교 2위의 나라로 축복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갖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과 고물가, 고금리 등 위기의 일상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들이 국가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켜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4월 10일 진행되는 총선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올바로 세워나갈 참된 국회의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현재 의료계의 혼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위급한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영역에서 젊은이들과 다음세대의 꿈을 심는 나라 되

게 하옵소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유엔 통계에 의하면 0.68명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취업, 결혼, 출산, 주거 등 모든 사회적 상황이 심각한 패닉상태에 빠져있는 차세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안과 우울증으로 흥기를 들고 극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청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자유롭게 하소서. 음란과 마약으로 사회가 병들고 있습니다. 마약이 근절된 나라가 되도록 완전히 차단하여 주옵소서. 언론의 권위와 역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잘못된 보도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며 편향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 국가 권익을 지키고, 국민을 위한 참된 언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2천2백만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김정은 압제 아래 신음하며 굶어 죽어가는 동포들이 날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출애굽의 역사를 복讎땅에 허락하시어 남북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39년 전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성장시켜 인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재훈 위임목사님이 영육 간에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온누리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서울 제4차 로잔대회가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약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사칼럼

비전센터가 더 많이 생겨야 한다!



이명화 권사
(수원온누리교회)

나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가? ‘수원비전센터’라는 땅끝에서 2년째 ‘Acts29’를 쓰고 있는 사실이 감사하기만 하다.

수원비전센터에서 나는 땅끝 서바나를 향한 바울의 선교 열정(롬 15:22-29)을 다 닦지는 못해도 ‘은퇴는 없다. 수원이 땅끝이다!’라는 비전을 품고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 이 땅에 찾아온 외국인들에게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발버둥 쳤다. 30여 명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11개 국에서 온 13개 종족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출산, 비자, 법률문제 등도 도와주면서 함께 기도했다.

특히 김지혜 집사님에게 유튜브를 배워서 직접 콘텐츠를 만들어 봤는데 남다른 은혜가 있었다. 장면을 삽입할 때마다 학생들과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더욱 귀하게 보였다. 유튜브 콘텐츠를 보여줬을 때 학생들이 받은 감동도 은혜였다. 정말 좋아하면서 가슴 뭉클한 게 올라와 눈물을 글썽거리는 학생,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학생, 본인 작품이 나왔다고 캡처해서 올려주는 학생 등 학생들에게 받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다.

수원비전센터에서 큰 위로를 얻고, 힘을 내는 이주민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어떤 학생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선생님, 저 마음 문을 열었어요”라고 말해주었다. 참

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학생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학생 심어 명에게 성경책을 나눠주고, SNS 단체대화방을 만들었더니 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올리고 있다. 아직은 성경 읽는 게 서툴지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다.

지난해에는 정말 많은 행사를 했다. 그 덕분에 정말 재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 온누리교회의 도움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줬다. 성가대에서 우리 학생들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환영하며 맛있는 음식도 제공해주셨다. 찬양 음악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도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주드림 성가대 이웃리치 초청에도 감사를 드린다.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기증해주신 성도님들의 후원금과 쌀, 기증품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흘러갔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특히 한 장로님은 수원비전센터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수원에 오시면 아무 때나 들리신다. 바자회 광고를 보시면 옷을 가져오시고, 성탄절 장기자랑 광고를 보시면 “선물이 필요하겠네?” 하시며 선물을 몽땅 갖다 놓고 가신다. 수원비전센터에 두 번째 교실이 만들어진 것도 그 장로님 덕분이다. 가장 감동적인 일은 본인이 암 수술하시고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수원비전센터를 방문하셔서 “이런 센터가 전국에 많이 생겨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에 선전하고 다니신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이주민 250만 명이 살고 있다. 올해에는 이주민 16만 명이 들어온다. 그들이 가지고 올 드라마이 정작하기 전에 우리가 서둘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올해는 더 많은 이주민이 살아나기를 소망한다. 전국에 각 지역명을 단 비전센터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최용준 목사
(강남B공동체)

선교는 은혜다. 올해 공동체에서 몽골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수년 전에 몽골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누렸던 은혜가 떠올랐다. 그때가 몽골에 처음 가는 것이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했다. 성공적이고, 안전한 아웃리치를 다녀오기 위해서 출발 전에 시물레이션 훈련을 하면서 꼼꼼하게 일정표를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몽골에서 예상과 전혀 다른 일정표가 기다리고 있었다. 4시간이면 간다는 목적지를 무려 12시간이나 걸려 도착했다. 오지여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버스 기사님이 정비와 주유를 제대로 하

지 않아서 타이어를 고치는데 한 시간이 걸렸다. 주유소가 없는 시골에서 기름이 떨어져 사오는 데 두 시간 이상을 허비했다. 이외에도 실수가 계속 이어졌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실수 투성이인 아웃리치였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드셨다. 실수 연발로 버스 안에서 지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었는데, 권사님들이 찬양을 부르자고 제안했을 때 그 버스가 은혜의 도가니가 되었다. 정비와 주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현지 버스 기사님을 팀원들이 오히려 괜찮다고 격려했다. 그랬더니 버스 기사님이 “나도 예수를 믿겠다”며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버스 안에서 보낸 열두 시간 동안 웃으면서 참으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동행했던 새가족들이 성숙한 믿음을 배웠다. 망친 일정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다.

그때 아웃리치를 생각하면 오병이어 기적 현

장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떠오른다.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에 제자들의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날이 저물도록 고쳐주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계셨지만, 그 백성들의 식사와 잠자리에 대한 걱정은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백성들의 식사와 잠자리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 이제 사역을 멈추라고 부드럽게 말한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들이 먹을 것을 막게 보내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라고 말한다. 제자들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가 저물기 전에 예수님이 백성들을 마을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그 곳은 빈들이어서 2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었다. 밤이 늦기 전에 예수님이 사역을 멈춰야 했다. 아마도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신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이 가진 것은 겨우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였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을까?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도전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떡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가 벌써 기대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땅에서 제자들이 경험한 오병이어 기적을 다시 한번 경험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해진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선한 계획으로 나를 가르치신다. 이번에는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게 된다. 올해 모든 아웃리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이지은 대표(010-8741-3077)

장애인 공동체 누리스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운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 온누리M미션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 / 러시아어 예배 13:00 선교관 301호 / 몽골어예배 14:30 선교관 101호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달 첫 주만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1:00 선교관 ACTS29홀

인천 온누리M미션
모자이크예배 14:00 3층 소망홀

안산M센터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지하 Onnuri Hall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베트남어예배 10:30 301호 / 아랍어예배 12:00 2층 Library /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4층 Manna Hall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4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3층 Startree / 중국(청장년)예배 11:00 4층 Manna Hall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2호 / 태국어예배 14:00 4층 Manna Hall / 필리핀어예배 14:00 지하 Onnuri Hall / 대학청년부 12:30 305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땅 11:00 1층 Star Tree Academy / 다문화 예꿈 11:00 지하 Dream Kids Room

김포M센터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몽골어예배 17:00 706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7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땅 11:00 705호

군산M센터
ANEWS예배 11:00 1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1:00 102호

남양주M센터
네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4호 / ANEWS예배 11:00 301호 / 캄보디아어예배 11:00 304호 / 힌디어예배 토요주일 20:00 301호 / 다문화 차세대예배 13:00 306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분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땅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화성M센터
네팔어예배 11:00 202호 / 캄보디아어예배 10:00 301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홀, 양재 온유희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CMN 라파티م 외국인 진료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 주일 오후 4시~6시
분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간호사
장소: 서빙고 선교관 B1 라파진료실
문의: 박귀홍 팀장(010-9990-2875)

2024년 하반기 (8~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안내
일시: 3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지하 2층 드림홀
요건: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가능(예비신랑, 신부는 타교회 상관없이 등록 교인이여야 함)
자격: 예비신랑, 신부 혹은 양가 부모님(형제나 친척의 대리 예약은 불가함).
준비: 예약금 100만 원(당일 이체불가, 현금으로 준비) 및 등록교인증명서(예비신랑, 신부 중 타 교회의 교인인 경우 소속 교회 '등록교인증명서' 지참)
선정: 당일 오후 7시까지 참석하신 분들에 한하여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번추첨 후, 순서대로 결혼예배날짜 선정 예약.
문의: 02-570-7505(일, 월 휴무)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쁨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희(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온유희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1부예배(사랑부)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비전홀B
문의: 이은일 목사(010-3646-7994)

2부예배(예수사랑부) 오전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희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랜드
문의: 김은지 관사(010-3285-1726)

CMN 토보티م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두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CMN 드림팀 의료진 모임
일시: 매월 넷째주일 오후 2시~6시
장소: 안산 고려인 동포교회
문의: 이도희 팀장(010-5663-192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온누리선교재단 재정팀 채용 공고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기업회계 경력 3년 이상
학력: 2년제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IT 웹퍼블리셔(PC/모바일/반응형 웹사이트 제작, HTML5와 CSS3로 웹페이지 제작)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마감: 3월 30일까지
접수: www.duranno.com/recruit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를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를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주일예배, 예꿈놀이학교, 사이닝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분당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희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벤젤라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막도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퍼스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막도세홀 /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주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5:3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14:00 / 꿈땅(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수요여성예배 10:30 백향목홀(3층)

http://www.onnuri.org			
국내 온누리교회 ●			
이재훈 위임목사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산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윤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 미사부 ● 열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6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6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클랜드 조준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문영재 목사 852-2506-0089 6/F, Tower 1, South Seas Centre, 75 Mody Rd, Tsim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관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부목사(전임)

- 전도사(파트)
강정모 김병주 강하람 강현구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권대식 권애람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성준
김혜정 네트라 백승현 비 컵 양현수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비 컵 양현수
서영철 상야베 사가르 이강희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진이
이민영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혼해이즈 체아미 최정현
하요경 황인신
- 전도사(파트)
강정모 김병주 강하람 강현구
가 나 김은하 김주영 권대식 권애람
김용산 김종균 김종영 김태주 김성준
김혜정 네트라 백승현 비 컵 양현수
마쉴루스 박씨마 백승현 비 컵 양현수
서영철 상야베 사가르 이강희
윌리엄 에릭 마이클 스티븐 이진이
이민영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정욱진
제인랑 혼해이즈 체아미 최정현
하요경 황인신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한정국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 위임목사
이재훈
-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길현
권용갑 김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상규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만 김명배 김요성
김용민 김용산 김용태 김요식
김재식 김재홍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용
김태원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지형 노희태 럼문 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전 박전중 박영준 배행산
백성우 백인규 백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진 신현미 스티브차
송동주 송재호 안시무엘 양성민
양진범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유현복 윤미라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재정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현수 최대홍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홍준
최재윤 최중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하성희 하정훈
한호수 한홍희 허원희 황신연

● 전도사(전임)

- 목사(준전임)
권오향 구혜미 조호영 황종연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거 이기복

결혼

3월 16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고 이강하, 최경옥(신생교회 권사)의 아들
이현재(온누리교회)
유정중, 정옥엽(애능교회 권사)의 딸
유지영(온누리교회)

3월 16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을
신철우, 박애숙(온누리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신대현(온누리교회)
김영권, 최연화(정주청복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딸
김지현(더사랑의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김현준, 홍하영, 김다애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식사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종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할 인재 채용
분야: 온전원(정규직), 조리보조원(계약직) 채용
내용: 온전원 대령면회 소지 필수, 조리보조원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의: 김혜지 과장(02-794-6100)
※자세한 내용은 문의 및 복지관 홈페이지 '채용안내' 확인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서초구립느티나무쉼터 원어민 강사 모집
내용: 서초점터에서 영어회화를 가르칠 원어민 영어강사
분야: 영어회화, 여행영어, 실생활 영어
문의: 유정진 사회복지사(02-6953-1833)

재정



INTERNATIONAL NGO

더 멋진 세상
better world

✧ 후원약정식
24년 3월 16~17일



너와 내가 만드는 더멋진세상

더멋진세상은 전세계 25개 국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며
긴급구호 활동을 돕는 국제개발 NGO입니다.

후원방법

현 장

일 시 3월 16~17일
장 소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의 주일예배 시
예배시간에 나눠주는 '더멋진세상' 후원약정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일 시 상시 가능

후원안내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2-002535
(사)더멋진세상
문 의 02-2271-2246



정기후원



증액후원